

월간 충현

가정의달
5
1984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1898년 12월 31일 밤 자정에 켄터키 주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 교장 휘잇(W. H. Whitsitt) 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숙사 학생들에게 송년 설교를 하였다.

그 분은 그때 정당한 역사관을 수상하다가 무지한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중상을 받고 있었다. 그 분은 그날 송년예배 설교를 이렇게 끝맺었다.

“젊은 신사 여러분, 나는 남북전쟁 때에 남쪽의 기병대 척후병으로 복무한 일이 있습니다. 바람이 심히 불던 어느날 밤 나는 북부 연방군의 전초부대의 정세를 탐지해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을 타고 진흙밭 길을 한참 내려가다가 갑자기 적군의 기마대가 어디선가 달려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숲속으로 말을 몰고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적의 대 기마대가 바로 내 옆을 어둠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와 캄캄한 어둠이 나를 지켜 주었습니다.

다시 숲속에서 나와서 나는 적진지에 접근하였습니다. 수천 개의 천막진지에 나는 말을 타고 유유히 가까이 갔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와 캄캄한 어둠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적의 초소까지 갔습니다. 보초병들은 초소를 떠나 비를 피하면서 불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와 캄캄한 어둠이 나를 지켜 주었습니다.”

폭풍과 심한 비바람과 어둠은 그 자체가 좋지 않고 또 좋지 못한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몰아치는 바람은 소동에 비유해서 말하고, 쏟아지는 비는 역경을 뜻하며, 캄캄한 어둠은 막막한 현실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맑고 명랑하고 조용한 생활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비바람과 어둠 속에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안정한 처지로 몰아 넣으시므로 오히려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와 캄캄한 어둠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명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역경이 있다. 아라비아 속담에도 “항상 해가 쏘이는 곳은 사막이 된다”고 하였다. 구름 낀 날, 바람 부는 밤, 비오는 철이 있어야 땅에 생기가 도는 것이다. 인생의 양지만을 좋아하고 웃음만을 찾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 음지와 역경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다.

충현교회는 그 술한 폭풍우 속을 뚫고 험로를 지나 한강을 건너 이제 새 예배당에 첫 발을 들여 놓았다.

충현교회를 지켜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는 됐다”하고 방심하지 말고 여세를 몰아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만 세대 천오백 구역)을 점령 하기 위하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신앙의 대열을 재정비하자.

이성근 목사(주간)

1984/5 차례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2권 제 4호 통권120호

- | | |
|---|--|
| <p>2 권두언 / 이 성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p> <p>4 이달의 말씀 / 김 창인
행복한 부부생활</p> <p>6 가정의달 특집
Ⅰ.결혼의 성경적 의미
Ⅱ.현대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Ⅲ.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책임</p> <p>16 독자의 시 / 박 진순
찬미할 특권을 받았으니</p> <p>17 독자수필 / 최 영신
주님과 만남의 시간</p> <p>18 칼럼 / 오 태용
시어머니와 며느리</p> <p>19 찬송가 해설 / 최 찬후
날마다 주와 비성거</p> | <p>20 오늘의 묵상 / 로이드 존스
모래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p> <p>21 주일학교 소개 / 새가정부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들</p> <p>23 선교할사람의 실제적훈련 / 테리 파이
선교사 훈련의 모범은 어떤 것인가</p> <p>27 해외선교 소식</p> <p>29 교회소식</p> <p>33 4월의 교우동정</p> |
|---|--|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행복한 부부생활

에베소서 5 장 22 - 33절

가정은 사회의 기초요, 국가와 교회의 시작이니 가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가정이 바로 되어야 국가의 질서가 잡히고 번영합니다. 가정이 바로 되어야 교회가 부흥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부부의 평균 점수를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약혼한 남자가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몸이 튼튼하고, 지식이 많아 아무리 최고의 남편감이라도 정당한 점수를 매긴다면 80점이면 남자 중에 최고 점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실수를 해도 단단히 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때에 화를 내며 일대일로 해 보자고 하며 싸웁니다. 심하면 말도 안합니다. 입을 봉하고 토라지면 평균 점수가 78점, 77점으로 감점이 되어 내려갑니다.

얼마 후에는 아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때에 남편이 통명스럽게 하는 말이

“내가 실수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지? 흥 저는 별 것인가? 얼굴만 예쁘면 다냐?”

이러면서 남자의 강한 주먹으로 아내를 올리면 그 가정의 평균 점수가 73점으로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일 년, 이 년을 사는 중에 평균 점수가 점점 내려가 59점이 되는 날은 이혼 소송이 끝나서 피차 갈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은 어떠합니까? 평균 점수가 부부의 개인 점수만 못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개인 점수는 70점 밖에 안되는데 부부의 평균 점수는 오히려 높은 가정

입니다.

남편이 한 번 실수했습니다.

“사람이니 할 수 없지”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뼈가 휘기까지 하면서 남편이 실수한 것을 메꾸 나갑니다. 열흘, 스무 날을 지나다가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편에서 참고 희생하니, 다른 한 편에서도 고맙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점수는 70점 밖에 안되는 부부인데 평균 점수는 75점으로 올라갑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아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나는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했는데”

이러면서 이해하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거리 줄입니다. 이 때에 부부의 평균 점수가 81점으로 올라갑니다.

개인의 점수보다 가정의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경제생활에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 수입의 십일조를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다음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양쪽 부모님과 교회의 집사님과 웃사람을 섬기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의 10분의 2는 아들 딸을 대학 공부시키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내 아들 딸 대학 공부를 다 시켰으면 남의 아들 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키우는데 씁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의 6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고 인색해야 합니다. 가정에 싸



움이 일어나는 것은 부부가 부모님께는 인색하고 아들 딸에게는 후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드리므로 불화가 생깁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아내가 자기의 사치품을 사는 데는 아까운 줄 모르고 쓰고 남편을 대접하는 데는 인색하다면 그 가정은 깨지기 직전입니다.

가정의 경제생활은 자식보다 부모님을 더 섬기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고, 남편은 자신보다 아내를, 아내는 자기보다 남편을 더 섬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3. 피차에 짐이 되지 아니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여성관에 대하여 한 마디 하겠는데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총각 처녀들은 뜻있게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일생 길가는 나그네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둘이 가면 좋겠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과 둘이 가야지. 그렇지 못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은 차라리 혼자 가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죽음 정거장까지 함께 가는 동행자를 구할 때에는 인물이 예쁘기보다는 마음이 예뻐야 하겠다. 그런데 예쁜 마음이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 첫째로, 길을 가다 보면 꽃밭을 지날 수 있다. 이 때 꽃들이 아주 예쁘다면서 “좀 구경하다 가요” 하며 거기서 주저 앉아서 나의 시간을 놓치게 하면, 남들이 가는 시간에 나는 낙오자가 될 것이니, 쉬자면서 함부로 시간만 허비하게 하는 여자를 아내로 구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 둘째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비탈길을 싸고 돌고 산마루를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 때에 ‘아 이구 다리야 나는 못가겠어’ 하며 쓰러져 울면 나 혼자 산을 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업고 가야 하니

얼마 못가 나도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탈길을 싸고 돌며 산마루를 넘어갈 때에 ‘조금만 참으세요, 이 산만 넘어가면 마을이 있어요’ 하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 셋째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시밭을 지나야 할 때도 올 것이다. 이때에 ‘어떻게 이 길을 가? 난 못가’ 하면서 우는 동반자보다는 ‘제가 꺾어버릴게요’ 하고 먼저 달려들어 손에 피를 흘리면서 가시덤불을 꺾어 길을 열어 주는 용기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실패할 것이다’

여성관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저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으니라 절세 미인이나 부호의 딸이나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도 제게는 보이지도 않았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평생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인데, 꽃밭에 앉아 쉬자고 하는 사람, 고개를 넘어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는 사람, 가시밭길에서 울부짖어 원망하는 사람은 먼 인생길을 같이 가기 힘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힘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되어 피차 힘이 되는 사람을 구해야 하고 또 이미 결혼했으면 피차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가시밭이 있으면 남편이 찢리기 전에 아내가 먼저 꺾고, 아내가 찢리기 전에 남편이 먼저 달려들어 길을 내어주는 사람들, 꽃밭에서 향락에 취하지 않고 오늘의 책임에 충실하고 고개 마루턱 위에서 낙심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피차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면서 개인 점수보다 가정의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경제생활에 분수와 질서가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피차에 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땅위에서부터 천국을 숨쉬어 나라를 번영케 하는 가정, 교회를 빛내는 가정, 가문을 빛내는 가정을 이루어 예수님 오라 하시는 날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당회장)

결혼의 성경적 의미

- ...결혼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 ...큰 관심사이며 또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
- ...이는 청지기로서의 충성된 생활, 그리고 풍성한 기쁨과...□
- ...행복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 가...□
- ...능하기 때문이다. ...□
- ...윌리엄 올다(William Oldar) 박사는 결혼 상대자의 선택...□
- ...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문제 다...□
- ...음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하였다. ...□

창세기 6장 3절에 홍수심판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잘못된 결혼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잘못된 결혼으로 세상은 부패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댓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므로 결혼문제는 한 개인 문제인 동시에 한 사회의 문제요,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에도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결혼이 죄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먼저 성경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깨닫게 될 때 “결혼은 왜 해야만 되는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며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늘 방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의 창조과정이 끝나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꼭 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는 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을 처음 지으신 후,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세우시고난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이 부부를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다.

이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제도라는 것이다. 즉,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며 어떤 특별한 사회환경에 따라 형성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행하신 첫번째 축복이 결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히13: 4)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 첫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다. 왜, 첫번째 이적을

1.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것이다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결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성경의 첫번째 가르침은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도 안되며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며 축복하실 만큼 인간을 위한 하나의 큰 축복이며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든간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축복을 받을만한 결혼인가?

2.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숙한 선언이다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이같은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이 바로 결혼이다. (마19: 5)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세우실 때의 동기가 창세기 2장 18절의 “사람의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같이 좋지 않은 아담의 형편을 「심히 좋은 형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하와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는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다”고 외쳤다. 실로 아담을 위해 지어진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과정에서 나타난 마지막 걸작품이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 두사람을 부부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다.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다. (엡 5 : 31)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지어다!”라는 선언인 것이다.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 상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고 부부인가? 부부는 마음이 통해야 하며, 보다 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정말 하

늘의 기쁨을 맛보며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는 것이다.

불행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부이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몸도 또한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하여야만 정상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한 몸이 될지어다”라는 선언 가운데에는 결혼제도에 관한 세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첫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일부일처(一夫一妻)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다.

둘째, 부부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근본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상대방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해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할 일이지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사랑의 원칙이다

이것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결혼이 정말 주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결혼인가?” 또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선언이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정말 실현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해 보아야한다. 그리고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만일 이상(理想)이 통한다고 하여 불신자와 결혼을 하였다고 하자, 몸도 하나가 되고 이상도 통하였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땅 위에서는 나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끝내 나뉘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말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에서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3. 결혼은 돕는 배필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이다.

성경의 진리중 구속의 진리가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에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청지기 직분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그저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며 또 삶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에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통해 부부를 세우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청지기 사역을 바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두 사람이라는 것은 사역의 기본수이다. 예수님도 진도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둘씩 보내시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둘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야말로 가장 완벽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을 세우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4.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 또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음행의 연고”라고 하였다. 사실 결혼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회는 음탕한 일들로 무서운 지옥의 소굴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식욕과 함께 강한 성적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 같은 욕구를 정당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세우신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이다. 결혼을 한다면 그저 둘만의 행복뿐 아니라 슬하에 태어날 자녀 문세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이 결혼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양육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여야 한다. 부모가 다 믿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과는 자녀교육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도의 생활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여야 한다.

□ 맺음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이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첫번째 축복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또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스러운 일이다. 참다운 결혼이란 언제나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은 또한 돕는 배필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차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된다.

결혼은 또한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참으로 나의 결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이라면 이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참으로 행복한 결혼은 될 수 없을 것이다. (*)

(주) 이 글은 1983년 1월 본교회 단기수련회에서 있었던 정상우 목사의 특강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이 동원 목사

(서울 침례교회 시무)

한 사람의 책임있는 삶이 가정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훌륭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정은 공동체로서 가족전체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로이드 스타일드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지나간 세기에 일어난 교육사(教育史)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육의 정의가 가정으로부터 학교로 옮겨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의 중대한 위기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교육을 보면 그 교육의 터전은 가정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지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이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었다. 이 가정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센터가 가정이었던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학교와 서로 분담

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학교에 일임한 상태가 되었다. 비극은 이러한데서부터 유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새롭게 자각했을 때 그때 벌써 우리는 현대의 기계문명 속에 돌입하여 있었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도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법적으로 38%가 이혼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법적형식을 갖추지 않는 이혼 가정까지 합하면 결혼한 두쌍 중, 적어도 한쌍은 이혼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위기의 전통이 우리 한국에도 상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도에 이혼한 부부가 무려 11,085건이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57.7%가 결혼한지 5년 미만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이제 이혼율은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이 무엇이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고 중차대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성경말씀 가운데서 가정의 위치와 우리의 할 일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경은 가정이 창조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은 사람의 지혜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사람이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계획속에서 가정이 있었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정이 탄생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성경에서 보면 둘 밖에 없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다. 우리가 이와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가정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우리들은 그러한 이원론적 사상을 단연코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신 것 같이 우리 가정의 주님도 되셔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도 자기 가정과 교회를 동시에 잘 돌아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너희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후 3:5)라고 한 사도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의 감독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자기 가정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가정생활, 원만한 가정생활없이 정상적인 교회생활, 원만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성경은 가정이 구속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하나님께서 가정의 한 식구의 구원을 통해서 가정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신가를 이 한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약시대의 노아의 가정과 신약시대의 고넬료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구원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가정에서 한 식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속의 역사가 온가정위에 영향을 끼치며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구속의 역사가 또 다른 이웃을 향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



하게 된다.

가정은 구속의 공동체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이다. 이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 현대교육은 최근에 와서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소리높혀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 가르쳤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잠 22:6) 어린이들의 교육이 평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잠언의 지혜자는 얼마나 실감있게 표현하여 강조하였는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마귀가 당신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빨리 손을 쓰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가정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이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첫번째 교사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돌도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경은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귀한 계명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요람지가 바로 가정이다.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라는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이 태어나고 양육되어 자신의 사랑이 승화되어 완성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가정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의 집을 구상해봄으로써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터위에 세워져야 한다

집은 터가 좋아야 하며, 또한 터를 잘 닦아야 확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집 짓는 두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혹시 이 두 집의 결모습은 서로 비슷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두 집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고 반석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우리가 세우는 가정이 그 기초를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에 둘 때 그 가정은 그야말로 성경적인 가정인 것이다. 참으로 우리 가정식구 중 절반 이상이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속의 체험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기초를 다진 셈이 된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딪히고,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때마다 가족과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훈에 터를 세운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시편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고백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가정인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터를 예수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두고 있는가?

둘째, 집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개의 기둥이 서 있어야 한다

옛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아린’과 ‘보하스’라는 두개의 큰 기둥이 그 성전을 떠 받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순종과 사랑이라는 두개의 기둥으로 떠 받쳐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할 수가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아내 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엡 5:22-24) 아내들에게는 이렇듯 복종의 윤리를 당부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의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5)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는 부탁하기를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엡 6:1)고 하였으며 부모들에게는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고 하였다.

사랑과 순종 이 두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것이다. 가정식구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은 이해와 용서라는 두개의 창문이 있어야 한다

만일 집을 지어 놓되 창문이 없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감옥과 같을 것이다. 행복과 축복의 보고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와 용서라는 두개의 창문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한 가정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 가정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가정의 진위를 결정할 것이다. 서로 용서의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가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

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져야 하지만 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주님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줄 알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순간인 것이다.

용서는 바로 사랑을 창조하는 언어인 것이며 기독교적 가정이 되게 하는 단어인 것이다. 아울러 용서라는 창문에 이해라는 창이 있어야한다. 이해(understanding)란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네째, 집은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

지붕 없는 집이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전될 수 없듯이 경건생활이 없는 가정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과 침입을 막을 수 없다. 가족 전체가 다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등을 갖지 못하면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가정의 행복을 깨치는 사탄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을 막는 길은 바로 온 식구가 경건의 생활을 다져가는 것이다. 남편의 죄가, 혹은 아내의 범죄가 가정의 행복을 얼마나 삼시간에 휩쓸어 버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가정을 지켜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집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열린 대문 이 있어야 한다

대문이 있다는 것은 식구들이나 이웃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같이 한 가정에는 진정한 교제와 대화가 있

어야 한다. 오늘날 부부사이의 단절의 비극은 부부사이에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매일 15분 정도의 대화시간을 가지고있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참다운 대화란 단순한 지식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사이에 하소연 쓰라림·아픔·억울함등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털어 놓고 대화하는가? 자녀들은 자신의 고통이 부모에게 전달되고 이해되었다고 생각될 때 부모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에서 우려나오는 대화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간에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곧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할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웃을 향해서 선교와 구제가 실천되는 가정, 넓게 열린 대문을 통해서 이웃 사람이 드나들고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 대화와 교제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곧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참다운 성경적 가정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다. 왜 여기에 술취함과 성령충만이 비교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곧 술과 성령 모두가 지배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이다.

과연 우리 가정은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 나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경적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온 가족과 이웃이 사랑가운데 하나가 되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린다.

(주) 이 글은 1983년 5월 본교회 주일학교 새가정부가 주최한 가정의 달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동원 목사의 강의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책임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하...□
 □...나입니다. 시편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쁨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
 □...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
 □...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시 ...□
 □...127 : 3 - 5)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가정이 선악간에 큰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태도, 습관, 그리고 가치들은 오직 가족의 돌봄과 지도 아래 있는 초기의 형성적 기간 동안에만 개발됩니다. 잠언은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로 이런 의무와 책임을 부모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 : 6)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떻게 “여호와와 주신 기쁨”을 교육시킬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훈련을 위한 권위와 책임은 주로 부모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 : 4)

이 명령은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교양과 훈계라는 두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통하여 아이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의도와 교훈과 의의 교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그 자신이 그 전체 삶의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의

자녀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까지가 포함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부모의 주된 임무는 자녀를 성숙케 하여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의 끝부분을 바울은 다음의 장중한 말로 된 아름다운 송영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 : 36) 궁극적인 목적은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단순히 “사람의 세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독교적인 양육을 통하여 그의 존재의 심연에서와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 28절에 나타나는 문화적 명령인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우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개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제적인 관연을 지닌다는 단순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인 한 농부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기 당 수확량을 높였다면 그는 “지배하라”는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나, 상인이나 목수등 그 어떤 문화적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적용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한 아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 가장이 되고 그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그도 성경적인 의미의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 수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째, 교훈의 방법들은 아이들의 본성과 신학적 지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어른은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고 특히 깊이 있고 폭 넓은 내용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 부분이 종종 지나쳐 버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다양한 발달단계에 따라 그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잠언 22:6 상반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그 자녀의 방식에 따라 아이를 키우라”는 것으로 여기서 그의 방식이란 바로 아이의 본성에 맞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연령층에 맞아야 하며 그들의 특성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방법이 젊은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정도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동성장의 법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전혀 갈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성격에 비추어 합당한 법칙들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일어날 때에 가장 훌륭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야말로 최선의 것이아니겠습니까?

네째,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른 양육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 양육 수단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가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징계를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들은 자녀들을 징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단순히 양육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양육의 수단으로서 아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義)에 대하여 잘 깨닫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반드시 정당하게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자녀에게 시행하는 징계는 주님께서 규정하신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어릴 때 부터 무엇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성해져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의된 것들로서 아이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자녀의 취침시간을 밤 8시 30분으로 정했다면 아주 피치 못할 합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지키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한 두 주간동안 계속해서 이 규칙이 강조되면 필히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 아이들은 부모가 이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가를 시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를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면 아이들은 자신이 이 기준 한도 내에서 그 기준에 맞도록 자기 생활계획을 짜고 그렇게 생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징계의 시행은 그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주의하게 공을 던지고 이웃 아이와 함께 실내에서 공받기 놀이를 하다가 꽃병이나 창문을 깬 경우에는 자기 수중에 있는 재력으로 그 손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서 점수가 떨어졌으면 그 아이를 공부하지 못하게 했던 활동들-예를 들어 점수가 오를 때까지 T.V 시청을 못하게 하는 일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사용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인도주의자들은 회초리를 사용하는 일을 원시적인 시대의 잔재라고 볼 것입니다. 회초리 같은 비인도적인 수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참으로 인격화시킬 수 있겠는가하고 묻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초달

(회초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
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니라.”(잠
13:24) 이 교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초리를 분
노 가운데서가 아니라 항상 사랑 가운데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② 개인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모는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
로 하여금 언약적인 삶의 축복과 책임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형태는 아이들의
종교적인 신앙의 발달에 큰 영향력이 있는 가정분
위기를 형성합니다. 날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인자한 육신의 아버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하
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
다. 두렵거나 다쳤을 때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경
험한 아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준비를 갖
춘 것이며, 성경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 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사66:13)
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아주 어린 유아 때부터 가정예
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는 인생의 초기부터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
의 실재와 접촉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③ 상황에 따른 가르침을 통해

부모는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 적절한
가르침을 베풀음으로써 자녀들이 산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교육도 삶의 상
황전체를 포괄하여 그에 적절한 귀중한 교육적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가정교육과는 필
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해 가장 좋은 상황은 아마도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일 것입니다. 그 이상 신앙의
내용을 들을 준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기 12:26-27이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
고 한 후에 그는 이런 특별한 권고를 덧붙이고 있
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
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아이는 깊이 있는 대답
을 들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
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거
든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
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
우에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말하여 줌으로써 아이들은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계획된 정규 가르침을 통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
한 세세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상적인 기
독교적 양육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밀접한 협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밤에
아이들이 자야할 때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는 그의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시간은 성경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더 자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성경이야기와 다른 기독교 문학 읽기를 즐길 것입
니다. 청소년들은 「천로역정」이나 요한 칼빈 또는
마틴 루터 등의 전기를 읽음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적 양육의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러나 이런 방법들은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인
생의 초기부터 아동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육
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
육을 가정에서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나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않은 적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
입니다.

[편집자주: 이 글은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
독교 교육』이라는 책(정음출판사간, 노르만 하퍼
저, 이승구역)으로 부터 그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
다.]

찬미할 특권을 받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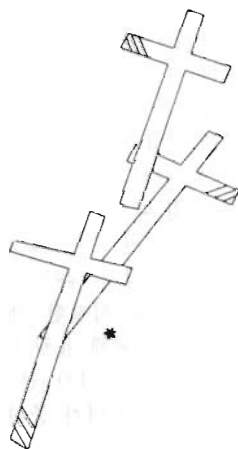
박 건 순

천지를
질서 있는 하모니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찬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 특권이
내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나로 더불어 대화하는 모든이들 앞에
확인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특권이
그 어느 세력에도
동요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인이 좌절하는 곳에서
만인이 슬퍼하는 곳에서
저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시되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찬양의 특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기회가 저를 점령하사
저와 접하는 모든 이에게 허락하옵소서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

최영신

마음속에까지 조여오는 답답함, 그리고 타는 갈증을 느끼는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루 하루를 잘 참아 넘기곤 했다. 그것은 나에게 인내라는 잔혹한 시간들이었다. 밝은 아침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드디어 그 기다리던 소망의 밝은 아침이 왔다. 답답하고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멀리 서계신 분으로만 느껴졌던 그분이 일대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부터는 너무나도 나의 가까이 계심을 알고 나는 놀라웠다. 이제 그분은 멀리

저 하늘에서 굽어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내 옆에 오셔서 나의 말을 들으시며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믿는 자의 신앙양식과도 같은 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드렸던 지난날의 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내 입가에서만 맴돌았었다.

생각하면, 지나간 날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번다시 그런 날들이 내게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의 시간이 더욱 더 즐겁고 향기로운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할 수 없이 기쁘고 만족한 시간들의 계속이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중에 기도중에 살아계신 그 분을 피부로 느끼며 나의 삶속 깊이까지 그의 손길이 와 다으며 동행하여 주심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만났다 헤어질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듯이 나는 그 분과의 순간 순간이라도 이런 아쉬움과 서운함을 맛보지 않기 위해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팔을 꼭 붙들고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 책소개 □

김창인목사 설교집제 2 권

칭찬듣는 교회

큰국판 · 420면 · 양장 · 5000원

김창인목사의 두번째 설교집이다. 1976년 첫번째 설교집 이후 설교한 내용중 30여편을 엄선하여 실었다. 김목사님의 설교는 듣는 설교라고 알고 있지만 책으로된 설교집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적이면서도 평이한 김목사님의 설교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

을 흘리게 하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아래 머리를 숙이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 왔다. 박윤선목사는 주월문에서 "그의 설교는 성령이 가르치는 설교의 원리와 창작적인 생명력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오 태 용

(새가정부 부지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잘못 인식된 개념중 하나에 소위 고부(姑婦)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본질적으로 견원지간(犬猿之間)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시부모 모시는 문제는 결혼 전에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다. 약혼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해결을 보지 못하면 파혼하는 것쯤이야 간단히 처리되는 세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시대의 조류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교 신자들까지 그런 풍조 속에 물들어 있다면-아무런 신학적 혹은 신앙적 근거 없이-이는 크게 잘못된 처사요 선교 100주년을 부끄럽게 하는 한국교회의 수치라 할 만하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결혼한 남녀는 부모를 떠나들이 한 독립된 인격이 되어야 한다.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 부모가 결혼전 처럼 그들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동등한 책임을 진 한 독립된 가정의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미혼 때는 부모가 상위 권위이지만 결혼 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상위 권위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인격적 간섭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다만 한국적 상황에 서는 이 원리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5월 가정의 달에 시어머니-며느리 관계는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내가 아는 어떤 가정에 성품과 신앙이 똑 같이 아름다운 신실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다. 그 시어머니집 사에서 언젠가 한번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씀을 하셨다. 두분 다 신앙 안에서 고부간의 현실적 갈등을 극복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소위 “남의 식구”는 어쩔 수 없더라는 것이다. “남의 식구”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이기고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우리 교회 새가정부를 통해 그런 가르침을 받고 원만한 고부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두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시어머니-며느리 관계는 바느질할 때마다 며느리를 콧속 찌르듯, 절구질할 때마다 시어머니를 콩콩 찧듯 하는 그런 저주스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의 하나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맺어 주신 복된 관계이다. 아무리 피가 다르고 입장과 위치가 달라서 갈등할 수 밖에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主)로 받은 내 신앙인격을 짓밟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앞에 고부관계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능력은 저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화해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소위 예수교 신자라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고부간의 문제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들에 관한한 다음의 들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의 고부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무력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主)로 받지 않은 것이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2,000년 교회사로 입증된 이상 고부문제로 갈등하는 이땅의 모든 크리스찬 시어머니, 며느리들에게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은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주(主)로 받았느냐?는 물음이다. 여기에 정직히 예스(yes)한다면 그들의 고부간 갈등은 해결된 것이며, 따라서 그 관계는 대단히 복된 관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며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목하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으며, 우리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었노라고!

“날마다 주와 버성겨”

- 333장 -

최 찬 후

(여성성가대 지휘자)

5월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는 달이다. 부부간은 물론 부모-자녀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라고 말씀하셨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사히 받아 경건히 양육하며 사랑으로 지도해 사랑스럽고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

‘주일학교와 교회에 데리고 다니 어릴 때 부터 교회를 사랑하며 성경을 배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야 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 날은 많은 어머니들에게 기쁜날이요, 많은 자녀들에게 감격의 날이다. 불효자녀들의 외로운 어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성으로 보내신 천사들이다.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어머니는 우리가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났거나 일지도 잊지 못하신다. 우리도 언제나 집을 잊지 못하는 거기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 아몬드(L. DeArmond) 부인은 여러 해 동안 그녀가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그녀가 담당한 반 아이 한 명이 집을 버리고 나갔을 때 그녀는 깊이 걱정했다. 결국 아몬드부인은 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감동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쓴 것이다.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Mother's Prayer)이다.

작곡가 미국인 아클리(B. D. Ackley)는 형님이 목사로서 그의 형제가 쓴 찬송가를 위해 번번히 작곡했다. 그는 성가를 부르는 성악가이며 성가 피아니스트로서 일했다. 본 아몬드부인의 찬송가 곡조를 작곡한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나는 선명하고 쾌활한 소식을 알려 주는 찬송가를 더 좋아한다. 의심의 안개 속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찬송을 더 사랑한다’라고.

저는 7년 동안 여성찬양대를 지휘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늘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모래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는 서두르는 사람이란 점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황급하다. 그들은 단번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경고하는가! 성경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서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의로운 사람은 결코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하실 계획들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는 결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짧은 시간에 모든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빠른 결과를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류의 사람을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잘 알게 된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나는 단번에 집 짓기를 원한다. 기초를 놓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타입이다. 그는 언제나 서둘러 일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그러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듣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집을 건축하는 원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집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만족하고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어떤 건축 원리들을 지켜야 하는가를 인식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한 바른 방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건축에 대해 배울 준비를 하며 언제나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 청종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집을 원하지만 건축의 원리들과 건축 규제 따위에는 시간을 들여 연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어서 세워라, 시간이 없다. 나는 가르침이나 교훈 따위는 싫다. 그냥 빨리 집을 짓기 원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너무나 서둘러서 가르침을 들을 만큼 차분히 참아내지를 못한다. 그뿐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들이 최고이다. 그는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 되어진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

니하며 다만 자신의 충동과 생각을 따라서 행할 따름이다.

그 정신구조는 사물들을 바르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신 구조이다. 그 정신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의외로 일어날 어떤 사건의 가능성을 정면으로 생각하며 부딪혀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 없이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며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는 멈추어 서서 자신을 향하여 자문하는 적이 없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름에나 겨울에 저렇게 유쾌히 흐르는 저 강물이 갑자기 무서운 폭우로 인하여 크게 불어나서 집이 떠내려 가지는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그런 것을 멈추어 생각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다만 바로 그 위치에서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숙고하지 않고 거기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를 보게나 이 사람아,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세워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네, 자넨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강물이 자네 집을 쓸어 갈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나는 강물이 큰 폭포수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네, 아주 잘 지은 집도 다 넘어뜨린 그런 무서운 폭풍을 본 적이 있어, 친구여, 난 좀더 깊이 파악 된다고 생각하네, 반석이 나오기까지 파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모든 제안을 다 기각시켜 버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일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일을 관심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유념하지 않고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한다. 그는 그런 일이 자기의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방식으로 일을 착수하며 그것을 행해 나간다. 그는 계획을 세우거나 세분화하여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세우고 있는 그 집을 시험할 어떤 확실한 시금석들을 직면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 ‘매일의 묵상’에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들

□…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가정에 관해 공부하는 새가정부를 …□
 □…소개한다. 6년째 접어든 새가정부는 이제 안정을 바탕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새가정부의 졸업생들이 많아지면서 성경…□
 □…적인 경건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앞…□
 □…로도 계속 새가정부를 통해 그리스도안에서 경건한 가정들이 세…□
 □…워지기를 바라며 새가정부를 소개한다…(편집실) …□

오늘날의 사회교육 및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논하는 중 모든 문제의 귀결은 가정교육의 문제로 집약된다. 아무리 사회나 교회에서 훌륭한 교육을 한다해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못 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 범죄의 배경에는 모두가 잘못된 가정이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치달으면서 가정이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가정은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가는 가정이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가 자성론(自省論)을 많이 펴고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의 바른 조명과 바른 성경적 제시와 바른 본보임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1979년 1월 7일 새가정부 개교

이와같이 성경적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해안을 가진 본 교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강과 세미나를 열어 가정을 시작하는 신혼의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오던 중 1979년 1월 7일 14번째의 주일학교로 「새가정부」를 신설,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일은 교회 내외적으로 무척 의의 깊은 일이었다. 가만히 자신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이처럼 가정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새가정부」를 개교했다는 것은 꼭 고무적이고 또한 다행한 일인 것이다.

새로 출범한 「새가정부」는 윤영탁 목사를 지도 교역자로, 이동규 장로를 부장으로, 박성수 집사, 안인현 권사를 부감으로 시작하여 1년이 지나서는 12가정의 1회 졸업생을 내었고 따라서 점차적으로 새가정부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새가정에 필요한
실제적 내용들이 교육돼

결혼 후 3년 이내의 신혼부부, 약혼하고 새 가정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결혼 직령기에 있는 미혼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새가정부는 온 가족(부부와 자녀)이 함께 출석한다는 것이 꼭 이채롭고 또한 그래서 더욱 화기

애애하며 자유롭고 신선하다.

따라서 이런 대상에 맞게 교육과정도 짜여졌다. 매 주일 집회시 지도 교역자의 성경강의를 통해 가정을 이룬 초기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정관, 부부, 부모와 자녀, 기타 가족과의 관계, 가정의 경건생활 등 가정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며 핵심이 되는(정말 이는 새가정부에서만 들을 수 있다) 내용을 다루고 태아교육, 산모건강관리, 가족계획, 소아과의학등 가정의학과 새가정의 식생활관리영양, 소아의 발달과정 및 심리지도 등의 새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매년 5월에 새가정부 특별세미나 때때로 열리고 있다.

매년 5월에 새가정부
특별세미나

또한 지난 1981년부터는 가정의 달인 5월 중에 「새가정부 특별세미나」를 열어 교회 전체적으로 가정의 중요성 및 각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모든 내용과 아울러 더욱 귀한것을 늘 서로가 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 가운데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

하며 도와 나가는 새가정부의 분위기이다. 각 부서가 모두 새가정부와 같은 분위기라면 교회가 커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교제(fellowship)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의 표어는 항상 감사

1984년도에는 처음부터 새가정부를 지도해 오신 윤 영탁 목사를 지도 교역자로, 부지도에 오태용 전도사, 부장 최기흥 집사, 부감에 한 형식 집사, 안 인현 권사와 14명의 교사와 80여명의 회원이 모인다.

항상 변수(變數)가 많은 새가정부의 특성 가운데에서도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정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84년도에는 「항상 감사하는 가정」(살전 5:18)이란 목표하에 말씀에 중심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가정예배와 성경읽기, 성구 암송(그동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끝내고 로마서의 주요 성구를 암송하고 있다)등을 강조하며 해 나가고 있다.

2부 예배가 끝난 오전 11시30분에 새가정부실(선교관 102호)에서 모이는 새가정부 집회는 I 부에 윤 영탁 목사의 강의가 있는데 그 내용은 각 개인과 가정의 경건생활, 말씀의 생활화, 성경에 나타난 가정, 실제 가정생활에서의 주요점 및 문제점 등으로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얻고 있다.

실제 경험을 나누는 분반공부



〈화기 애애한 가운데 분반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II부에는 피터슨과 스미스 부부가 쓴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라는 교재를 가지고 일반공부를 하고 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왜 결혼했나?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 생활의 기초는 무엇인가? 자신과 배우자를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성숙한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인가? 바람직한 부모는? 등에 관한 내용을 서로간에 토의하며 배운다. 이시간에는 각가정이 이런 내용의 문제를 각 가정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에 신혼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만 가정들을 통하여 격려와 자극과 교훈을 얻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모든 가정들은 말하고 있다.

새가정부의 목적은 신혼부부와 새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고 새 가정을 허락하신 뜻을 헤아려 말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는데 있다.

올해도 새가정부는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축복하고 순종하며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을 위하여

애쓸 것이다. 또한 분반공부와특강, 세미나를 통하여 가족과의 관계, 부부, 자녀관계, 산모와 유아관리, 유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모들에 대한 상담과 위급할 때는 믿을만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안내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럼고 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비슷한 경험과 문제들은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해결함을 받는 은혜도 체험하고 있다.

견고한 가정은 신혼초부터

정말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회의 여러가지 배려로 결혼 적령기나 신혼부부들을 신앙의 가정으로 이끌기 위한 새가정부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주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 최고의 만족과 가치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가정을 시작할 때부터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세워 나가는 일일 것이다. 가정에서 실패하고 다른 곳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

선교사 훈련의 모범은 어떤 것인가

테리 파이 (Terry Pye)

(본교회 협동선교사)

선교사 훈련에 대한 참된 모범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훈련시킨 것이 바로 선교사 훈련의 참된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1. 제자들이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과감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이는 어부였고, 어떤이는 세리였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였다. 그것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그들로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 이해와 확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즉 선교사의 첫째 관문이다.

2. 예수님은 자신의 훈련을 통해 훈련하셨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전도하실 때와 쉬실 때도, 기도하실 때와, 식사하실 때도,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셨다. 함께 하는 주님의 생활을 통해 생활방식을 배웠고, 일할 때 우선 순위가 무엇이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와 또 그분과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며 배웠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훈련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세상을 향해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훈련 받도록 하셨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운 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전도하는 일에 능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함으로 훈련하셨다. 주님은 제자들이 말을 할 때 들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다.

3.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보전과 그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으며 그 사랑을 품기를 기도하셨다.

4.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가지 배정을 가진 각



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가 원하시는 일꾼으로 다듬어(mould) 가신다.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선교사가 필요하며 또 어떤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일꾼을 스스로 채우신다. 하나님은 바울과 누가와 같은 학자를 택하시는가 하면, 무식한 어부도 택하셨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각양 각색의 직업과 계층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일꾼, 선교사로 부르실 수 있으며 부르실 때 주요 임무만을 주신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마 28 : 10~20)

□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들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는 아니다. 선교사에게는 특별히 지혜와 비전과 용기, 그리고 인내와 성실과 겸손이 필요하다. 이런 자질은 특별히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훈련의 필요성이다.

이 훈련의 중요한 한 부분은 본국과 해외에서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기본원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다. 즉 과거의 여러 해외선교단체의 잘못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즉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인가?

(1)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 이신 주님이 그의 메시지를 전달할 대사를 세우시고 보내신다. 그 대사는 바로 선교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선교사는 자기를 과송하는 자가 전하도록 명령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대사로써의 사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선교사는 진리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예수님 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같은 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자란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의 책임은 자기를 보내는 자가 전하라는 소식만을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자가 된 그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보낸 주님의 권위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는 메시지에 자기의 뜻을 더하여 변조하거나,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 그는 자기를 보낸 분의 종일 뿐 아니라, 자기가 전하여야 할 말씀의 종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역할은 그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3) 선교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니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요 3 : 16). 또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다(갈 2 : 20).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같이 세상의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함이 마땅하다(요 13 : 35).

그러므로 선교사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완벽한 어학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은 모두가 무용지물이다. 선교사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선교사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선교사의 신분, 즉 그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사람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사자이며, 사랑의 사도인 것이다. 선교사 훈련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훈련은 어떤 것인가

타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선교사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선교사는 선교지로 가기전에 먼저 가고자 하는 선교 현지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백성들과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생활속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처럼 선교사는 먼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자로,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훈련해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의 선교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선교훈련의 목적은 — •가고자 하는 선교지 문화권의 이해, •전해야 할 메시지의 정확한 이해, •선교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파악, •선교사 자신의 사역분야와 기대되는 역할의 개발, •선교지에 서의 생활태도와 신앙에 대한 단련 등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건생활의 훈련

경건생활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산 교제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생활을 말한다. 생명력 있는 산 교제란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와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 동안에는 선교

사가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에 없거나 다른 사자가 없거나 동역자가 없어도 선교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 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크나 큰 위로와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다.

경건생활훈련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읽지만 말고 우리 심령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듣지만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서의 신앙과 영적생활의 실재성이 선교지에서 만큼 매섭게 테스트되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역은 오직 철저히 회개한 자만이,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매일 직접 받는 방법을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만이 선교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이같은 경건생활훈련의 실제적 훈련으로는 그의 영적은사를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먼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하는 법, 즉 팀웍(teamwork)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사로서 부딪치는 가정 생활과 자녀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2) 타문화 적응 훈련

타문화를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3) 실제적인 전도사역 훈련

한국에서는 농어촌이나 도시할 것 없이 현재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넓게 열려 있다. 이런 개척전도의 경험은 앞으로의 선교사역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여러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4) 음성학에 대한 이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의 말로 전할 수 밖에 없다. 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쉬운 다른 길은 없다. 그러므로 음성학에 대한 연구와 훈련은 다른나라 말을 소리내는데 도움이 된다.

(5) 조직과 관리능력의 훈련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에 있어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교기금을 잘 관리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한다.

(6) 선교신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

선교와 사회문제, 대정부 관계, 교회연합운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W. C. C 등 현대의 선교신학적 관세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7) 기독교선교사역에 대한 이해

기독교 선교역사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선교사들이 모두가 그들의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선교사역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는 바이지만 선교사 자신들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많은 약점들도 발견될 수 있다.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교역사의 이해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8) 타종교에 대한 연구

세계의 종교를 알고 비교연구하여 타종교에 대한 그릇된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9) 성경의 적용방법 훈련

장차 선교사가 될 사람은 귀납적 성경연구(Inductive Bible Study)에 익숙하여야 한다. 즉 어떤 성경구절 하나로 전체적인 가르침과 조화시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강해설교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말씀을 적용하는 습관을 체득하여야 한다.

선교지를 위해 준비하는 최선의 훈련 가운데 하나는 일정한 기간에 관심있는 물신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경공부반을 인도해 보는 것이다.

(10) 선교지역에 대한 연구

세계 여러 선교지역의 선교단체 활동과 선교사의 필요를 아는 것은 장래 선교사역에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선교단체의 잡지나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기적인 선교정보를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11) 선교사 자신의 마음준비

간혹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팀(team)으로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데 실패함으로 주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그 자신의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즉 •정서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적응력, •웃는 법(긴장해소를 위해 유모어 감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상대와 협력하는 법, •지시나 조직에 복종하는 법,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법,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태도 등이다.

아무리 해외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명예를 흠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에 자신이 있으며 적격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누가 이런 일에 합당하리요?'라고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합당함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 못지않게 확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 맺 음 말

선교 100주년을 맞는 지금, 한국은 분명히 이제 세계를 향해 선교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며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중원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성장시키며 아울러 선교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교회가 길러내는 것이다. 날 때부터 선교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주님으로 부터 분명한 선교적 소명을 받은 자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

이러한 선교사 후보생들에 대한 실제적 준비와 훈련을 위해 본 강의가 중원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역사이심을 믿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할렐루야!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 지난 3개월 동안 장년 133명과 어린이 16명이 결신하였으며 개척교회도 40개처로 증가됨.
- 3월15일-29일까지 말루쿠 개혁교단의 초청과 서부 뉴기니아 지사의 특별 주선으로 암본과 서부 뉴기니아 지역을 순회함.

〈기도제목〉

- '84년말까지 50개의 오지 개척을 위하여
- 서만수 선교사와 정영옥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애굽 (이준교 선교사)

- 3월27일-4월4일 카이로 한인교회 춘계대심방을 실시함.
- 4월6일 탈비아 복음주의교회 저녁 예배를 인도, 아랍어 성경 20부 가증함.
- 4월10일, 11일 애굽 복음주의 교단총회(제94차 나일대회)에 참석함.
- 4월15일 카이로 한인교회 성례식을 거행하였으며 학습 3명, 입교 1명, 세례 1명임
- 4월22일 카이로 한인교회 부활절 축하예배를 드림.

〈기도제목〉

- 카이로 한인교회 현장예배, 포트사이트 가정교회 및 애굽 선교를 위하여.
- 3월 교통사고시 부상당한 애굽인 청년 무하메드 아와드씨의 완쾌를 위해.

벨지움 (김성완 선교사)

- 나토 사령부가 있는 몽스지역을 방문 성도의 가정을 심방함
- 4월 9일-12일까지 제직과 권찰을 중심으로 서 백림 장로교회에서 수양회를 인도함.

〈기도제목〉

- 자체의 교회당 구입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 선교사의 영적,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

서독 (육호기 선교사)

- 3월 6일-28일까지 바스바덴교회 춘계 대심방을 실시함.
- 비스바덴교회 창립 7주년 기념으로 교회회보 “새벽별” 창간호를 발행함.
- 외국생활에서 성도들의 교양과 인격적인 모범성도가 되기 위하여 “교회문고”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80부정도로 수집되었

으나 양서가 많이 수집되면 “교회문고”로 확장하려고 계획중임.

〈기도제목〉

- 비스바덴, 하나우, 뷔츠브룩 새 한인 교회를 위해.
- 선교사의 영육의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
- “교회문고”에 비치할 많은 양서가 수집되도록.

칠레 (유재일 선교사)

- 칠레주교 반주자, 운전사, 사할로 수고하는 호세 바스켓스 형제의 현지 사역자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한글을 가르침.
- 3월18일 1/4분기 칠레 어린이 주교 시상식을 거행함.

〈기도제목〉

- 선교사와 가족을 위해.
- 칠레 한인교회를 위해.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3월 1일 교회 전체 야외 예배를 드림.
- 3월 1일 교인 주소록을 제작하여 각 구역과 가정에 배부함
- 3월29일-31일까지 강사 피종길 목사를 모시고 연합 부흥성회를 실시함.

- 3월중 등록가정은 7가정이며 원주민 교회의 지원은 10개치임.

〈기도제목〉

- 교회의 부흥과 원주민 선교사업을 위해.
-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3월2일 세계기도의날 대광구 세군교회 행사에 이권사와 히로오교회 네자매가 참석함.
- 3월7일 10년간 중풍을 앓고 있던 하찌모도(68세)환자를 왕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함.
- 3월18일 통일교에 장남을 빼앗긴 일향자매를 위해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기도함.

〈기도제목〉

- 영육간에 능력주시기를.
- 선교사 내외분의 건강을 위해.

인도 (엘리아젤간 선교사)

〈기도제목〉

- 인도의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해.
- 푸리그어 신약성경 번역사업을 위해.
-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리성총현교회

- 3월31일 오전8시 정상우 목사 안착함.
 - 정목사의 사택과 자동차 운전 면허등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됨.
 - 4월22일 부활절 예배를 드림.
- 〈기도제목〉
- 정상우 목사 가족들을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 라성총현교회를 위하여

털사총현교회

- 털사총현교회의 아름으로 주정부에 등록을 함.
- 부흥회 및 목사 위임식을 가짐
- 4월22일 부활절 축하예배 및 성례식을 거행함.
- 교회현황으로는 장년 52명, 학생17명, 금요집회 30명 참석하고 있음.

〈기도제목〉

- 털사총현교회의 부흥을 위해.
- 성전건축을 위해.
- 500여 털사교민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 강성진 목사의 가족을 위해.

본부소식

- 수난주간 기간중인 4월17일 은혜 가운데 새성전으로 이사를 마치고, 22일에는 새성전 입당예배 및 부활절 기념예배와 별도로 본 선교회 선교관 사무실 입당예배를 실행위원 및 선교회원들이 함께 모여 드림.
- 4월20일 교역자 및 장로 몇분이 함께 육사 도서관, 시청각연구원, 군사박물관 전시관을 방문하여 선교관 상설 전시관 및 총현세계선교연구소 설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함.
- 홍콩 총현교회 지교회 설립을 위해 최병현 집사와 이만열 선교사께서 귀국하여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4월24일 25일 각각 출국 귀임함.
- 4월29일 4부예배후 선교회 전체 월례회를 가짐.
- 5월4일 홍콩총현교회 설립예배를 위한 성구족자 2점을(시18:1, 시23:1) 오이세 항공 화물편으로 발송함.
- 5월6일 기도원 부지도로 수고하시던 김성주 강도사가 본 선교회 부교역자로 부임.

- 5월5일 한화선교협회 명의로 홍콩 지교회로 담임할 오치용 목사께 초청장이 도착, 여권신청 및 소양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비자발급까지 약 1개월반-2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 5월8일 서만수 선교사께서일시 귀국, 인도네시아 정부관계 업무 및 말루쿠 개척교단의 기독교대학설립, 농·수산 기술자, 선교사, 전도훈련 담당 선교사 초청관계 업무를 협의함.
- 5월15일 에스더 여전도회 제1지회의 초청으로 본 선교회 교역자가 참석, 인도네시아 선교부 활동보고 및 간담회를 가짐.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10시 20분
-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
- 주, 월,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 기도원출발: 오전 5시 30분, 오후 4시 (주일 제외)

• 차량운행코스: 총현교회→잠실네거리→송파→성남모란시장(시외버스정류장)→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광주에서 이천방면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1311-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0347-2-4425

교회소식



새성전이전기념 부흥회

- 5월 7일부터 12일까지 -

우리의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새성전으로의 감격스러운 이전을 지난 4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마치고 이를 기념하고 아울러 교인 배가로 교회 부흥의 전기를 삼기위한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새성전으로 이전하여 첫 부흥회 집회인 만큼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연5일 동안에 회집한 교인 수는 8700여명에 이르렀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 특별히 전도위원회(위원장 김원남)와 구역연합회(회장 장정일)의 협력으로 총동원전도운동을 펴기도하였다. 각교구의 구역에서는 구역지도요원을 중심으로 전도위원회에서 제작한 특별 전도지와 집회안내서를 가지고 가가호호 축호전도를 펴기도 하였다.



세번째 성례식 예정

교회는 올들어 세번째 성례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할 예정이다. 각 교구의 구역별로 해당자들을 미리 파악하여 빠짐 없이 문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장들이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성례식을 10월 둘째 주간에 있을 예정이다.

- 문 답...6월21일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6월22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세 례 식...유아세례 : 22일 오후 2시
장년세례 : 22일 오후 7시30분
- 성찬예배...6월24일 I, II, III, IV 부대 예배시에 있음
- 문답자격
 - ① 학습...교회출석하신지 6개월이상
되신분 만14세 이상
 - ② 세례...학습 서신후 6개월 이상되신분
 - ③ 입교...유아세례 받으신 분으로 만 15세 이상 되신분
 - ④ 유아세례...만 2세 미만의 아기로 부모의 신앙적 합의자

교회성장 세미나 개최

충현교회 5대목표를 중시한 목회실제의 연구평가와 교회 지도자(교역자·장로)의 영성훈련을 통한 교회성장과 부흥을 목적으로 있는 제4회 교회성장 세미나가 6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본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충현교회 성장과 교회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역자와 장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구역운영·전도·교육·예배·건축 등 5개 분야에 걸쳐 충현교회 조직개편 후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각 분야 담당 위원장이 연구발표하고 지속적인 교회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각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교구별 야외예배

구역권찰회는 성도의 교제와 교구별 친교·단합을 통한 구역화 성화를 위해 6월 중으로 각 교구별 야외예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정된 날에 각 교구의 구역 가족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모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집합장소와 시간 및 교통편과 기타 준비사항은 각 교구별로 서면 통지한다고 하며 교구별 야외예배 예정 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교구: 6월 18일, 태릉 푸른동산
- 2교구: 6월 26일, 태릉 푸른동산
- 3교구: 6월 26일, 태릉 북한선교훈련원
- 4교구: 6월 15일, 남이섬
- 5교구: 6월 15일, 서오릉
- 6교구: 6월 19일, 태릉 북한선교훈련원
- 7교구: 6월 14일, 소양호
- 8교구: 6월 일, 태릉 북한선교훈련원
- 9교구: 6월 16일, 태릉 푸른동산
- 10교구: 6월 12일, 종묘

입당기념 전도집회

본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산하 주교각부에서는 새생전입당을 기념하고 아울러 학생배가를 위한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초청전도집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강남일대의 모든 학생들이 모두 주께로 인도되어 새로운 학생전도의 불길이 일며 아울러 교회부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하며 계획하고 있는 이번 학생전도

홍콩충현교회 설립

충현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으로 믿고 세계선교에 힘써 온 우리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해외 지교회 설립에 유의하고 있다.

지난 3월 파송된 정상우 목사가 시무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엘레이충현교회를 비롯하여 지난 5월 6일에는 홍콩충현교회 설립예배를 50여명(장년 45명, 어린이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리었다.

그간 고 홍종만 목사가 시무하던 홍콩한인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 홍콩을 발판으로 하는 공산권선교(중공과 북한)를 하기 원하는 우리교회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홍콩충현교회의 설립으로 다시금 공산권선교를 위한 일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히 이곳 홍콩충현교회에 파송받기 위해 수속중인 오치용 목사가 현지에도 도착하게 되면 공산권선교를 위한 우리의 선교계획이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충현의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이들 해외 지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한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위하여 쉬임 없이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집회에 기도로 후원해 주고 물질양면으로 밀어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주교 각부별 초청전도집회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초청전도집회 / 6월 7일(목)~9일(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 중등부전도요원훈련 / 6월 16일(토), 17일(주) 양일간인데 첫

날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둘째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 고등부초청전도집회 / 6월 1일(금), 2일(토) 양일간인데,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 대학생초청전도집회 / 5월 28일(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기행사 일정계획

주교 각부의 올해 하기행사 (계절학교, 수양회) 일정계획이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다.

대학부 / 7월 9일 - 13일, 기도원
 청년부 / 7월 16일 - 19일, 기도원
 유치부 / 7월 23일 - 25일, 본 교회
 유년부 / 7월 23일 - 26일, 본 교회
 초등부 / 7월 23일 - 26일, 본 교회
 소년부 / 7월 23일 - 26일, 본 교회
 중등부 / 7월 30일 - 8월 2일, 기도원

직장전도교육부 / 8월 2일 - 4일, 기도원
 소망부 / 8월 13일 - 15일, 기도원
 영아부 / 8월 14일, 15일, 본 교회
 중년부 / 8월 15일, 16일, 기도원
 장년부 / 8월 17일, 18일, 기도원
 여전도회연합회 / 8월 9일-11일, 기도원
 북한선교훈련 / 7월 23일 - 27일, 정선

70인 전도요원 수료식

전도위원회 (위원장 김원남)의 제 1기 70인전도요원훈련 수료식이 지난 4월 29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있었다.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이날 수료한 사람은 모두 62명인데 이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8주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전도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하여 각 교구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성전 철거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난과 격동의 시기였던 6.25 이후 30여년 동안 충현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지였던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3에 위치한 구성전이 철거되었다.

이제는 그 자취를 다시 돌아볼 수 없이 기억 속에나 남아 있게 된 구성전은 철거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지난 4월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예배시간 변경

(1984. 5. 27 현재)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1부	오전	7 : 00	본101	
	2부	오전	10 : 00		
	3부	오전	12 : 00		
	4부	오후	3 : 00		
주 일 저녁 예 배		저녁	7 : 30	본101	
삼 일 기 도 회		저녁	7 : 30	본101	
새 벽 기 도 회		오전	5 : 00	본103	
교 구 활 동		오후	4 : 30	각건물교구실	
지 회 활 동		오후	1 : 30	각건물지회실	
철 야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11시	본101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1부	/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선 103		고 등 부	오전 9 : 30			교 414	
	2부						오후 4 : 00				
	3부										
유 치 부	1부	/ 오전 9 : 30 오전 11 : 30 오후 3 : 00		교 205		대 학 부	오전 11 : 30			교 514	
	2부					오전 11 : 30	교 507				
유 년 부	오전 9 : 30 오후 3 : 00			교 212		청 년 부	오전 11 : 30			교 414	
	오전 9 : 30 오후 3 : 00					중 년 부	오전 11 : 30			교 307	
초 등 부	오전 9 : 30 오후 3 : 00			교 314		소 망 부	오전 11 : 30			교 107	
	오전 9 : 30 오후 3 : 00					직장전도 교 육 부	오전 9 : 00			교 507	
소 년 부	오전 9 : 30 오후 3 : 00			교 307		새가정부	오전 11 : 30			선 102	
	오전 9 : 30 오후 3 : 00					새신자부	1부 / 오전 11 : 30 2부 / 오후 1 : 30			교 212	
중 등 부	오전 9 : 30 오후 4 : 00			교 407		세 레 부	오전 11 : 30			교 314	
	오전 9 : 30 오후 4 : 00										

우리교회 70세이상의 할아버지·할머니 28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올해로 열아홉번째 맞는 이번 경로잔치에는 먼저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의 특별순서에 이어 식사와 함께 위로 행사도 진행하였다.

학생·학부모 초청강좌

지난 5월 20일 중등부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어떻게 하면 학생으로서 효과적인 학습을 하며 또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를 놓고 강의「공부는 이렇게한다」(김단용 집사),「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김대호 집사),「나는 이렇게 공부했다」(김강윤)라는 제목의 강의와 발표가 있었다.

교역자·지휘자 이동

지난 5월 4일 정기당회에서 김성주 강도사(전 충현세례선교회 부지도)를 충현세례선교회 부지도로 인사이동시켰고 찬양대 지휘자로 최광덕, 조인원 두분을 새로이 모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찬양대 지휘자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찬양대 지휘자-최광덕, 2 부찬양대 지휘자-이관섭, 3 부찬양대 지휘자-최명룡, 4 부찬양대 지휘자-조인원, 선교찬양대 지휘자-김영준, 여성찬양대 지휘자-최찬후

교회직원 인사이동

그간 사찰 및 경비로 수고하던 정상근·김의진·김우진 집사가 지난 4월 2일부터 사임하고 다음과 같이 충원되었다. 교회경비-동창환·조웅환·조준행·홍순영 청소-오정균 홍보출판부-임정희 전화교환-김경희

각 종 통 계

1984. 5. 6.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1 부	250	46	710	총 세대수		
	2 부	680	1,230	1,910			
	3 부	480	940	1,420			
	4 부	320	870	1,190			
	소계	1,730	3,500	5,230			
배	주 일 저 녀	290	400	690	교 인	남	4,482
	삼 일 저 녀	680	1,180	1,860		여	5,930
주일학교	영 아 부	198	179	377	총 수	계	10,412
	유 치 부	143	168	311			
	유 년 부	153	146	299	세 려	남	2,639
	초 등 부	133	150	283		여	3,893
	소 년 부	208	224	432	입 교	계	6,532
	중 등 부	202	199	401			
	고 등 부	128	168	296	유 아	남	557
	대 학 부	76	100	176		여	461
	청 년 부	59	71	130	세 려	계	1,018
	중 년 부	25	60	85			
	장 년 부	40	247	287	학 습	남	323
	소 망 부	46	130	176		여	476
	직 장 전 도 교 육 부	21	66	87	교 인	계	799
	새 가 정 부	25	37	62			
	장 년 새 신 자 부	49	86	135	원 입	남	963
	세 려 부	28	62	90		여	1,100
	합 계	4,234	7,173	11,407	교 인 계		2,063

교구별 구역교사 공과공부 장소

- 1 교구 - 교407호
- 2 교구 - 교309호
- 3 교구 - 교201호
- 4 교구 - 교311호
- 5 교구 - 교410호
- 6 교구 - 교212호
- 7 교구 - 교307호
- 8 교구 - 교301호
- 9 교구 - 교414호
- 10 교구 - 교314호



4 월의 교우동정

새 교우

1 교구

김종문	김문숙	김원순	임승언
김 회	고기성	박래삼	윤근중
장희철	정의종	임성복	김영규
이문자	김민선	김영락	이금복
홍현숙	조숙자	이한복	엄금례
정태령	김영자	김상택	박종화
이종익	이두표	이창권	김정자
양광선	김동인		

2 교구

박정수	안옥자	신숙자	장복수
김수태	주한식	신경진	이상덕

3 교구

박영규	김창호	이수정
-----	-----	-----

4 교구

최정근	김영혜	주용진	조수동
오필록	김주홍	신광훈	이옥순

5 교구

이옥임	김광근	이영복	황용현
최영필			

6 교구

박순덕	최경섭	이화순	조미연
김형옥	김봉선		

7 교구

김정식	김동수	김영미	김수봉
오소라	이소영	조근례	김진수
권원섭	최윤선	박인이	고육란
김현임	장장수		

8 교구

조향숙	배병현	이준자	차광만
심미란	양옥이	최병조	권은주
강천봉	김인섭	장미애	송옥영

9 교구

윤미순	김혜영	박봉순	김향희
박정숙	장진현	오영하	삼희경
윤희선	이연순	우현구	김승철
손성희	김학숙	김봉래	이두공
최영국	장선복	최정자	김영민
박재안	김경희	이혜이	송영진
백만호	박복순	김은산	김길한
김광영			

10 교구

이종필	김재임	민인기	이영숙
김윤이	정인경	최명호	박경희
최승옥	윤미화	김경화	전지원
신상미	박정희	이의복	김현숙
장미자	이정율	김기철	

결 혼

- 한상기군과 천혜정양 4월 3일 본교회당
- 정관호군과 김은숙양 4월 3일 본교회당
- 김양래군과 안사원양 4월 3일 본교회당
- 이대현군과 남윤주양 4월 5일 본교회당
- 유춘옥군과 박준현양 4월 5일 본교회당
- 강진천군과 이경옥양 4월 5일 본교회당

- 이승찬군과 이영복양 4월 5일 결혼회관
- 김용록군과 장수혜양 4월 6일 본교회당
- 여명수군과 박정심양 4월 7일 본교회당
- 조성원군과 임명희양 4월 7일 본교회당
- 강석순군과 이해재양 4월 7일 본교회당
- 최규철군과 문영란양 4월 7일 구새교회관
- 지성광군과 정형심양 4월 10일 본교회당
- 장태모군과 박금순양 4월 10일 청평예식장
- 남용일군과 길보숙양 4월 11일 본교회당
- 최달용군과 장정남양 4월 12일 본교회당
- 허재창군과 장성희양 4월 14일 본교회당
- 송충진군과 박경혜양 4월 14일 본교회당
- 최상진군과 정인숙양 4월 25일 규수당예식장
- 김종환군과 한정인양 4월 28일 본교회당
- 장원영군과 심미옥양 4월 28일 이화예식장

별 세

- 박중녀씨(필동 구역) 4월 6일 별세
- 박종범집사(장안 1구역) 4월 10일 별세

6월의 행사

□ 당 회

1일 / 정기당회

□ 제직회

3일 / 제직회

□ 기획조정실

24일 / 월간총현 발행

□ 구역권찰회

교구별 야외예배

일시: 1984. 6월중 실시

대상: 각 교구 식구

방법: 각 교구별로 실시

목적: 교구 활성화와 친목도모

□ 예배위원회

24일 / 성례식 · 성가대헌신예배

□ 전도위원회

5월17일~7월5일 제2기 70

인 전도요원 훈련 매주 목요일

오후 2:00

11일 / 농어민 초청 전도집회

18일 / 병원전도 전략 세미나

□ 북한선교위원회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 11:00

11일~14일 사도 경건훈련

25일~29일 목회자 경건훈련

□ 교육위원회

3일 / 실무자 교육(2)

17일 / 주교 실무자 교육

24일 / 월례회의

6월-16부 주일학교 여름 계

절학교 준비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달 특집』으로 지난해 1월과 5월에 우리교회에서 각각 실시되었던 정상우 목사와 이동원 목사의 강의 내용을 각각 요약·발췌하여 실었다.

여러가지 형편상 강의자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지면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두분의 강의 내용이 지면에 소개되므로서 절흔을 알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과 이러한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

용이 될 줄 믿는다.

□ 교회내 각 기관에서는 월간총현에 실릴 각기관의 주요소식과 관계 유인물 및 사진들을 홍보출판부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독자의 신앙간증·수필·새언등의 글도 많이 투고하여 보다 성도들과 밀접한 내용의 총현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표지의 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라 했다. 그러기에 가정에 주어진 자녀는 하늘의 큰 축복이요 귀한 선물이기도 하다.

가정에서 이들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또한 이들은 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매 성례식 때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한다. 그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 자신의 이름과 나이조차 모른다 해도 교회는 그들을 완전한 인간격체로 대하는 것이다.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집위원

정 상 우	조 현 명
장 장 인	이 형 수
김 수 성	

월간 총현

1984년 5월호

제12권 제4호(통권120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4년 5월 28일 인쇄

1984년 5월 31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최석주

주간/이성근

홍보출판부장/김광신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65-1

전화/562-4181~5

□ 사진뉴스 □



□미국 L.A 총현교회 담임목사로 정상우 목사를 파송하고 파송패를 전달하는 김창인 목사 (1984. 3. 25 구성전 본당)



□북한선교 호러원 부지를 헌납한 조관실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김창인 목사 (1984. 5. 13 새성전 본당)



□애마다 청년부가 주최하는 제19회 경로회 (1984. 5. 12 교육관)



□미국 열사총현교회에 강성진 목사가 위임식을 마친 후 온 성도들과 함께 (1983. 10. 23 미국 열사)

□선교여행 중 마로께 노회 사무실에서 때르 마르 노회장과 함께 한 인도네시아 서안수 선교사 (1984. 3. 21 인도네시아 마로께)
(가운데 왼편사진)



□벨기에 브뤼셀 한인교회 (김성환 선교사) 주일예배 후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 (1984. 3. 벨기에 브뤼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엡 6 : 1~3